

선교의 파도가 일고 있다!

- 송기태 선교사 -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 공동대표, 선교한국 프로그램 위원

이제 30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지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지금은 주님의 탄생한 시점에서 2000년을 이미 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역사가 깊어진다고 자랑할 것인가?

이제 주님의 초림 이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분명 한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2000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주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는 지난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보낸 적이 거의 없다.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들이 그 사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잠자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요나서를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1차적으로 요나가 불순종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하도록 유도하셔서 니느웨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면 교회가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비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명령을 회피하고 깊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선교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하여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단기선교와 국내 이주 노동자 사역이다.

작년 만 하더라도 여름 단기선교에 전국적으로 3~5만의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추정치가 있다. 이 수치는 지금 전 세계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의 3배~5배 가까운 수치이다.

지역교회가 단기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있다. 지역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라는 큰 중보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교

지에 성도들을 파송하고 있다. 이 단기선교에 있어서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선교지의 사역이 가속화되며 동시에 지역교회의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원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의 평신도 시대가 열렸다.

또한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장선교사를 도울 뿐 아니라 지역교회가 더욱 주체적으로 선교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한가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선교적으로 깨우고 계신 사건이 바로 이주 노동자 사역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노동을 위하여 국내에 와 있다.

그들은 국내에 일하러 왔지만 그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처음에 그들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 혹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왔다. 그러다가 모임이 형성되고 예배로 발전했으며 지금은 각 민족과 나라별 모임들이 정착되고 있다.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타민족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멀리 느껴지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말을 몰라도 밥을 지어준다든지 한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찬양팀으로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가?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